



강북구의회
GYEONGBUK DISTRICT COUNCIL

의정활동보도

2015년 12월 07일
(월요일)

동북일보 4면

민원안내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 필요성 제기

박문수 의원

(새정치/미아동, 송중동, 번3동)

지난 구정질문 때 본 의원은 미아동 복합청사 내 청사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.

민원안내 같은 경우 구청에는 4인이 근무하고 미아동복합청사에는 2인, 총 6인이 맡고 있습니다. 지난번 구정질문·답변 속에서 1인당 연간 예산이 2,100만 원, 그래서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4,200만 원이 투입이 된 곳이지요.

박 의원은 “총 6인이 근무하는데 강북구 주민은 단 두 명이고, 4명은 노원구, 도봉구, 성북구, 도봉구에 주거하는 사람들이다” 라며 자료를 첨부하기도



▲ 박문수 의원.

했다.

또, ‘민원안내’ 부분에서 미아동 근무 직원의 분장 업무내용이 ‘내방민원 종합안내 서비스, 부설시설물 안내, 전화응대’, 그다

음에 ‘주차안내 및 정산’은 하단에 되어 있다고 했다.

이어 박 의원은 민원안내 뜻말은 없고, 주차요금정산소만 아주 크게 되어 있다며,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을 자료로 첨부하며, “저런 행태 때문에 지난번 구정질문·답변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지금 그 내용이 답변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.” 며, 본 의원의 질문의도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.

이에 박문수 의원은 민원안내가 꼭 필요한지, 타구 인원을 꼭 써야 되는지, 그리고 현재 미아동복합청사 내 1층에 근무하는 그 두 명의 실제적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 파악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답변을 요청했다.

〈박은주 기자 jeji718@naver.com〉

강북신문 5면

◆강북구의회 5분 자유발언- 박문수 의원

“미아동복합청사 효율적 관리운영 나서주길”

박문수 의원은 제1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“지난 구정질문을 통해 미아동복합청사 내 청사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다”며 효율적 관리와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.

박 의원은 민원안내의 경우 구청에는 4인이 근무하고 미아동복합청사에는 2인, 총 6인이 맡고 있다고 밝힌 뒤 “지난번 구정질문·답변 속에서 1인당



연간 예산이 2,100만원, 그래서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4,200만원이 투입이 된 곳”이라고 말하고 “그러나 총 6명 중 강북구 주민은 단 두명”이라고 말했다.

특히 박 의원은 분장 업무내용이 ‘내방민원 종합안내서비스, 부설시설물

안내, 전화응대’, 그 다음에 ‘주차안내 및 정산’은 하단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“어제 본 의원이 찍은 사진에는 민원안내 뜻말이 없었으며 주차요금정산소만 아주 크게 되어 있다”고 밝히고 “이것이 꼭 필요한지, 타구 인원을 꼭 써야 되는지, 그리고 현재 미아동복합청사 내 1층에 근무하는 그 두 분이 실제적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재파악해서,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 답변을 해달라”고 요구했다.

미아동복합청사 효율적 관리 및 운영방안은?



박문수 의원

제19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박문수 의원은 “지난 구정질문 때 본 의원은 미아동 복합청사 내 청사관리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질문한 바가 있다”고 했다.

박의원은 이어 민원안내 같은 경우 구청에는 4인이 근무하고 미아동복합청사에는 2인, 총 6인이 맡고 있다. 지난번 구정질문·답변 속에서 1인당 연간 예산이 2,100만원, 그래서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

4,200만원이 투입이 된 곳이라고 말하고 강북구 주민은 단 두명이라고 했다.

또 분장 업무내용이 ‘내방민원 종합안내서비스, 부설시설물 안내, 전화응대’, 그 다음에 ‘주차안내 및 정산’은 하단에 되어 있지만 어제 본 의원이 찍은 내용에는 민원안내 뜻말이 없었으며 주차요금정산소만 아주 크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이것이 꼭 필요한지, 타구 인원을 꼭 써야 되는지, 그리고 현재 미아동복합청사 내 1층에 근무하는 그 두 분이 실제적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재파악해서,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.